

# 6월 마지막 주말에 만나는 풍성한 음악의 향연

6월 마지막 주말(29일), 전통, 현대를 넘나드는 풍성한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국악 공연 '초화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가 오는 29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국악 단체 '초화'가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춘향가', '심청가' 등 전통 판소리의 내용을 각색한 창작곡들로 구성됐다.

이날은 판소리 '춘향가' 중 지방 원님과 수령들이 모여 잔치를 즐기는 장면을 표현한 '변사또 생일잔치'로 막을 올린다. 이어 이몽룡의 사랑을 담은 '사랑가', 광한루의 경치를 노래한 '사면경치', 신관 사또가 부임해 내려오는 모습을 담은 '신연맞이'를 무대에 올린다. 또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황후가 된 후 아버지를 생각하는 대목 '심황후사친가'를 모티브로 만든 '가을 달빛'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기다린다.

초화(대표 윤준호)는 2014년 창단해 9명의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악 단체다. 이날은 윤준호(연출·타악), 김이정(해금), 송태훈(건반), 정나리(아쟁), 남지원(소리), 최석근(대금·소금), 김태진(피리·태평소), 구슬아(가야금)가 출연한다. 무료 관람. 문의 062-232-1595.

광주에서 활동하는 관악연주단체 CNS 윈드오케스트라(단장 한성모)는 29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2회 정기연주회 'Together'를 연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이번 공연은 세계 여러 국가가 함께 어울리듯 음악적인 어울림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공연은 존 윌리엄스의 'Olympic Spirit'을 제임스 쿠거가 편곡한 버전으로 무대에 올리며 시작한다. 아랍 데 한의 '콘체르토 다모레', 영국 국가 'God Save the Queen', 히로타카 이즈미의 'Omens of Love' 등도 준비돼 있다. 토시히코 사하시의 '딥 퍼플 메들리', 최완규가 편곡한 '코리아 사운드 콜렉션-이문세' 등 여러 곡을 한 데 모은 무대도 마련된다.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무대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이 박범훈의 '신모듬' 중 셋째거리 '놀이'를 선보이고 CNS 윈드오케스트라는 화음·추임새 등으로 함께한다.

국악실내악팀 '초화', 전통문화관서 판소리 창작곡 무대

CNS 윈드오케스트라, 사물놀이·오케스트라 협연... 광주문화회관 오키나와음악협회 광주지부, 광산문화회관서 앙상블

# 29일

지난 2008년 창단한 CNS윈드오케스트라는 광주·전남 지역 전문·동호인 관악기 연주자 50여명이 함께 하는 단체로, 2014년부터 6년 연속 제주국제관악제에 초청받아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선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추성호가 지휘봉을 잡고,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이왕재(쟁과리)·김용석(장구)·안연섭(북)·김광숙(징·작소)·오영미(태평소)가 협연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5481-6679.

오키나와·피아노·소프라노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도 마련된다. 오키나와리스트 임소영, 피아니스트 김선아, 소프라노 강소라가 '위드(with) 콘서트-3인 3색의 음악선물'을 29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친다.

한국오키나와음악협회 광주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광주시·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만세만세만(萬)만(滿)계 일환으로 기획됐다.

임소영 등 3명의 연주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각각 오키나와 협연곡으로 '월새는 날아가고', 소프라노 협연곡으로 'Never enough', 피아노 협연곡으로 'Frontier'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협연 단체들을 위한 무대도 준비됐다. '광산오키나와앙상블'이 영화 '침묵' 삽입곡 '월랑대표아적심', '천공의 성 라퓨타' 삽입곡 '너를 태우고'를 선보이고, SWA 원당산 오케스트라는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과 함께 '클래식 서곡 교향곡' 등을 연주한다. 이상화 테너 등 3명의 '넬라루체 남성 트리오'가 참여해 '지금 이 순간' 등을 무대에 올린다.

관람료 1만원. 문의 010-4655-3070.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통 음악을 모티브로 창작 국악 공연을 펼치는 국악실내악팀 '초화'의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 '순간의 예술' 누드 크로키

최재봉 작

'토만사' 정기회원전, 7월7일까지 양림미술관

1993년 창립한 누드 크로키회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들' (토만사·회장 최재봉)은 광주에서 최초로 누드 크로키 전시회를 연 미술 단체다. 1994년 빛고를 갤러리에서 열린 창립전에는 김경애·박병우·장현후·정용규 작가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후 '토만사'는 매년 약 50여회,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전문 모델과 함께 크로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누드 크로키회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들' 정기 회원전이 오는 7월7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28회째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우진·이근표 고문을 비롯해 김경애·황영성·양동희·류순열·정인선·김성숙·채명자·정용규·이승희·박인주·황경숙 작가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자신만의 감각으로 묘사한 크로키 작품을 선보인다.

신비로운 여체를 자유분방한 터치로 신속하게 그려내는 누드 크로키는 작가의 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르다. 연륜이 쌓인 작가들은 다양한 포즈를 취한 모델의 모습에서 포인트를 잡아내 순식간에 선으로 묘사하는 누드 크로키를 늘 '처음'을 생각하라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최재봉 회장은 누드 크로키에 대해 "장수가 강철을 당겨 접히고 굽어지는 찰나 속에서 우직함을 발견하고 단칼에 대쪽을 가르는 감각의 칼끝과도 같다. 때로는 아리랑의 춤사위 같고, 낙랑장송의 자태같다"고 말한다. 문의 062-675-700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성녀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 7월3~7일 동산아트홀

## '만두 한입, 추억 한입'

배우 김성녀의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사 진)'이 7월 3-5일(오후 7시 30분), 6일(오후 3시, 7시), 7일(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공연 중에 실제로 만두를 빚으며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은 이들의 삶의 변화와 치유의 이야기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혼자 살아가는 영순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이었던 세탁소를 떠나야만 한다. 떠나기 전날, 영순은 가난하지만 정겨웠던 동네에서 추억이 담긴 음식이자 아들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만두를 만들기 시작한다. 영순은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하나 둘 펼쳐놓는다.

재일한국인 정의신이 작·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은 지난해

12월에 우람문화재단의개관기념공연 중 하나로 첫 선을 보였다. '천년의 고독'으로 테아토르상, '더 테라야마'로 기시다 구니오 희극상, '아끼니꾸드레곤'으로 요미우리연극상과 아사히무대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성녀 배우는 2005년 초연한 뮤지컬 모노드라마 '백숙의 요정'에서 1인 32역을 연기하며 올해의 예술상, 동아연극상 연기상 등을 받았다. 이밖에 백상에 솔대상 연기상, 한국연극협회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제20회 이해광 연기상 등 유수의 상을 수상했다.

이태섭 무대미술가와 함께 김철환(작곡), 김창기(조명), 이경은(안무) 등이 참여한다.

입장료 4만원. 문의 1644-6755.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야문화원 '제2기 혁신이끄미' 본격 활동

발대식 갖고 혁신동아리 운영방향·과제 논의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혁신적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제2기 혁신이끄미'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발족한 동아리인 혁신이끄미는 '진환경 소재 현수막의 예술적 재활용'을 제안해 2018 기획재정부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남겼다.

이번 제2기 혁신이끄미는 신입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6급 이하 10명의 직원들로 최종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북라운지에서 발대식을 갖고, 혁신동아리의 운영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이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인지하는 시각을 토대로 고객 중심의 혁신에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혁신이끄미에서 나온 혁신 안건을 기관 경영상 최고 회의체인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주니어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